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나은영** 차유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군중성이 확대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특성(공론장 중심 소통의 익명성, 익명의 일반화된 타자 네트워크의 군중성)이 내집단 동조와 외집단 배척 태도 및 행동 요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인 비합리적 신념과 언어성 분노행동, 문화적 특성인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 등이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 보았다. 전국 표본 성인 응답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터넷 공론장 중심 소통, 일반화된 익명의 인터넷 소통 네트워크 규모,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중 인정욕구와 언어성 분노행동 중 파괴적 정당화,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등 문화적 차원이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히 특정 이슈에 관련된 집단극화가 아닌, 정서가 포함된 행동준비성에 해당하는 일반적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의 결정요인들에 관심을 두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 강화 상황으로 인해 양극화 유발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개인 특성이 살아 있는 소통 공간, 그리고 이견과 닳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의사소통 문화가 집단극화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집단극화, 공론장, 익명성, 네트워크, 군중성, 비합리적 신념, 언어적 분노성, 문화

문제제기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은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의 발달로 인간 사회 속의 심리적 현상들이 미디어 안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인터넷 토론장이나 트위터 등에서 볼 수 있는 집단적 행동은 이제 더 이상 낡은 광경이 아니다. 공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정치적 토론은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의 질을 높여주고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의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사회과학 지정주제 연구 KRF-2009-328-B00085). 논문 마무리 과정의 일부는 서강대 교내연구비(201110071.01)의 도움을 받았음.

** 교신저자 : 나은영,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E-mail: ena@sogang.ac.kr

한다.

특히 갈등 이슈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현실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의 집단극화를 유발하기 쉽다. 그 이유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특히 공론장의 토론은 상당 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개인의 책임 있는 표현보다 균중성에 의거한 비이성적 휩쓸림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동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한 방향으로 더욱 극단적인 의견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Wallace, 1999). 육안으로 상대방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대면 관계에서는 겉으로 표출되는 여러 단서들을 바탕으로 화자의 개인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화'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개인의 신체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탈개인화'에 의한 인신공격,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의 일탈 행동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Postumes & Spears, 1998).

인터넷 안에서 익명성이 증대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견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박성희와 박은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 대결양상으로 나뉘는 갈등형 이슈에서는 초기 의견으로 형성된 주장이 토론 후까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입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토론 후에도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갈등형 이슈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나타난 의견방향을 관찰한 후 대세를 추종하는 승자편승적 경향도 보였다.

인터넷 집단극화 현상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나은영(2006)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집단 간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개관한 바 있고, 이은주(2008)는 탈개인화 효과에 관한 사회적 자아정체성 모델(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 SIDE)의 이론적 가정과 실증 연구결과를 검토하며 개인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SIDE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익명성이 확대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집단 정체감이 현저해질 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 이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주목하였다. 즉,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이슈라면 어떤 이슈든 관계없이 익명성 증대 상황에서 더욱 내집단에 동조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양극화 유발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여기서 '유발성'은 일종의 '행동적 준비성(behavioral readiness)'으로서, 정서가 포함된 행동 직전의 단계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비교적 개인화된 정체성이 많이 드러나지만, 공론장 형태로 이용할 때에는 익명성에 기반을 둔 탈개인화된 상황에서 양극화 유발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익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의견을 접할 가능성이 커져 지각편파로 인한 양극화가 감소될 수 있지만, 온라인 네트워크는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닌 '일반적' 네트워크의 경우 '익명의 일반화된 타자들(anonymous generalized others)'의 규모가 클 때 오히려 지각편파로 인한 양극화 유발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익명의 일반화된 타자들은 개인 특성이 상실되거나 최소화된 균중들로 지각되기 때문이다(서길수 등, 2009; Turner et al., 1987).

더 나아가, 이러한 양극화 유발성은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이나 언어성 분노행동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견 갈등 상황에서 양극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권력거리가 커서 보통 때 뒷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화, 또는 낮은 것을 두려워하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문화도 익명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양극화 유발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인터넷 공론장처럼 익명성이 확대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양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키며, 이 과정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언어성 분노행동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권력거리나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집단극화 유발성과 사회적 정체감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란 일반적으로 집단 토론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의 사고가 극단적으로 되는 경향을 말한다(Myers & Lamm, 1976). 집단극화 유발성은 집단극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직전의 준비 상태로써, 인지 뿐 아니라 정서와 동기가 함께 섞여 있는 행동적 준비성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반적인' 집단극화 유발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어떤 이슈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접했을 때의 1차적인 정서와 평가 및 행동성향 등으로 구성된다. 누구의 의견인지도 모르고 단지 '나와 다른 의견'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는 '익명의 의견'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와 평가로 이루어진 준비 상태이므로, 인터넷 공론장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익명성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집단극화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들, 즉 사회정체감 이론(Tajfel & Turner, 1986), 사회 비교 이론(Festinger, 1954), 및 설득 주장 이론(Burnstein & Vinokur, 1977) 중에서 특히 사회정체감 이론은 동질적 집단 내의 의견극화보다 이질적 집단 간 양극화 과정을 잘 설명한다. 사회정체감 이론은 개인이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비추어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정체감 이론을 검증할 때는 주로 '사소한 기준'으로만 집단을 나누어도 내집단 편애가 일어남을 보이는 '최소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 MGP)'을 사용한다(Tajfel & Turner, 1986). MGP에서처럼 예컨대 무선적으로 나누어 준 번호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도 배분 과제에서 자기 집단에 더 많은 성과를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는 집단, 즉 '우리(we)'와 그에 대립되는 '저들(they)'을 구분하는 집단 정체성은 당연히 최소집단보다 더 큰 내집단 편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Price(1989)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 갈등(예: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의 커리큘럼 갈등)을 신문 타이틀

로 크게 보도함으로써 집단 정체성이 뚜렷하게 부각되면, 두 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의 내집단 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고, 그렇게 극화된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하는 사회정체감의 현저성(salience)으로 인해, 동일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서로 더 전형적인 내집단 규범에 치우친 판단을 함으로써 의견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큰 것으로 잘못 지각하게 되고, 이렇게 잘못 지각한 극화된 규범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Hogg et al., 1990).

지각편파와 내집단 편애로 인한 양극화 과정은 집단 안에서 개인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 확대 상황에서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익명성 효과의 사회정체감 모델(SIDE)은 CMC의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사회정체감 이론과 익명성 효과를 함께 적용한 모델이다. 균중심리의 익명성으로 인한 탈개인화 효과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SIDE 이론이 집단 간 관계에 대한 사회정체감 이론과 만나면서, CMC의 특성 중 익명성으로 인한 탈개인화 효과가 집단 정체성 지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고전적인 탈개인화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균중을 이룰 경우 개인의 개성이 사라져 탈개인화되기 때문에 규범이 없어지는 측면을 강조하였다(Diener, 1980; Zimbardo, 1969). 반면에, SIDE에서는 탈개인화 상황에서 집단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오히려 집단에 근거한 판단을 더 내리기 쉬워진다고 주장한다(Reicher, Spears, & Postmes, 1995). 균중 속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의 집단 규범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탈개인화(deindividuation)'는 원래 '개별성(individuation)의 상실 또는 결핍'으로 정의되었다(Fromm, 1941). 자기인식(self-awareness)의 분석 단위가 '나(I)'에서 '우리(we)'로 변형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Wicklund, 1982, p. 226). 이와 유사한 '탈개성화(depersionalization)'는 "스스로를 사회적 범주 내의 교환가능한 사례 중 하나로 자기고정관념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Turner et al., 1987, p. 51). 어떤 경우든 자기와 내집단 구성원을 동일하게, 유사하게, 또는 상호교환적으로 지각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초

기의 군중심리는 타인의 무리(mass of others)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었다면, CMC 상황에서는 타인의 무리와 ‘미디어를 사이에 두고’ 심리적으로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집단극화 현상이 블로그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 상황에서 더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예: 오미영, 2011; 이동훈, 2009; 이은주, 2011).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때 이미 소속집단이나 의견의 찬반에 근거한 편견을 ‘생각의 틀(즉, 프레임)’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후의 의견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애, 이종혁, 2011). 집단극화 유발성은 이처럼 궁극적으로 집단극화를 일으키게 되는 편파적 프레임(frame)의 역할을 한다.

인터넷 공론장의 익명성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군중성

인터넷 공론장의 익명성

인터넷 공론장 중심의 소통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나의 개별적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쓴 글’로 대변되는 의견들만이 드러날 뿐이다. 이은주(2008)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의제 중의 하나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정을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가진 다수의 익명적 개인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솔직한 의견, 주장을 교환한다. 이때 참여자들에 대한 개인적 정보가 부재한 탓에, 오직 해당 이슈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는 점만이 강조되어 그에 기반한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쉽다.” (이은주, 2008, p. 25).

이처럼 ‘의견의 유사함’만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익명의 토론을 진행하는 인터넷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확대된 익명성으로 인해 내집단 규범에 맞춘 반응을 할 위험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며, 두 집단이 모두 서로의 규범에 치우친 반응을 함으로써 양극화의 위험에 빠져들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공론장은 익명의 의견들로 인한 탈

개인화 과정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익명의 의견 교환은 의견의 집단 특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집단에 기반을 둔 판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개인 특성과 면대면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귀납적(inductive) 집단정체감과 달리, 처음부터 집단 특성이 먼저 부각되어 개인 특성이 과소평가되는 연역적(deductive) 집단정체감 하에서 탈개인화에 의한 집단극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Postmes et al., 2005). 개인 특성이 사라진 인터넷 공론장에서 오로지 익명 의견들의 유사성만으로 집단 특성이 부각되는 상황은 집단극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온라인 포럼에 대한 선택적 노출, 포럼 메시지의 선택적 지각, 및 온라인 포럼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메시지에 대한 선택적 게시(selective posting)는 온라인 포럼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더 극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다(Yun & Park, 2011). 인터넷 공론장 중심 소통은 개인 중심 소통에 비해 개별성을 희생하고 익명성에 의지한 채 의견 유사성에 근거한 집단 속성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공론장 중심 소통이 개인 중심 소통보다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군중성

이성적인 개인들도 개인의 특성이 사라진 ‘군중(crowd)’이 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게 된다(LeBon, 1908; Zimbardo, 1969). ‘군중성’은 개인적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단위로서의 개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군중성’의 초점이 있다(Reicher, 1987; Turner et al., 1987). 오프라인의 ‘깊이 있는’ 개인적 의사소통과 달리, 인터넷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의 일반인 대상 소통 과정은 일반화된 타자 네트워크의 군중성을 띠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군중성에 의거한 비이성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군중성이 익명성으로 인

한 탈개인화 효과를 더 증폭시키기 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Nie(2001)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가 비이용자들보다 더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혜택 받은 계층, 즉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갈수록 다른 사람과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접촉 등이 줄어든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타인 접촉이 많거나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가 증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 중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의 비사회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Shenk 1997; Nie and Erbring 2000; 배영, 2005 재인용).

오프라인 대인관계에 바탕을 둔 개인적인 깊은 관계와는 반대로, CMC상의 일반화된 익명의 타자와의 관계는 그 규모가 클수록 탈개인화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개개인의 인간적 특성에 바탕을 둔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지각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클수록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익명의 의견들에 바탕을 둔 온라인 네트워크는 그 수가 많아도 하나의 덩어리로 지각되기 쉬워(cf. Harkins & Petty, 1981; Lee, 2006),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탈개인화가 증폭되어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생활 속에서 내집단 동조의 정도는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기 때문에(Milgram et al., 1969), CMC 토론 상황에서도 익명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반적 네트워크 규모와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특히 익명성이 확대된 온라인의 '일반적'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이로 인한 집단 기반 지각편파와 의견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의사소통은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1. 익명성이 더 많이 확보되는 공론장 중심 의사소통은 개인 중심 의사소통보다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다.

연구가설1-2. 익명성의 특성을 더 많이 지니는 온라인의 깊이 없는 일반적 의사소통 규모는 깊이 있는 의사소통 규모보다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다.

개인적 특성의 영향

비합리적 신념

동일한 집단극화 유발성이 나올 수 있는 익명의 인터넷 공론장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의 일종으로, 추후 판단에 객관적이지 못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 신념은 분노 유발 과정에도 크게 관여한다(Deffenbacher & McKay, 2000; 서수균, 2009 재인용). 비합리적 신념은 어린 시절의 중요한 경험들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이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억 속에 조직화하고 저장하는 일종의 인지구조로, 외부자극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지닌다.

집단 소속 및 공동체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획득하는 능력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비합리적 신념은 '집단적 자존감(collective self-esteem, CSE)'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Watson & Culhane, 2005). 또한, CSE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정체감에 위협을 받을 때, CSE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큰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Tajfel, 1982).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외집단에 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Fiske & Taylor, 1991).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 집단적 자존감, 내집단 편애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비합리적 신념은 집단 자존감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익명성 확대 상황의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언어성 분노행동

온라인 의견개진과 갈등 커뮤니케이션은 대개 ‘언어적’으로 표현된다. 온라인 분노 표출을 특히 ‘플레이밍(flamming)’이라 하여 따로 연구하기도 한다(박현구, 2008). 온라인 공론장에서 의견이 다를 때 유발되는 분노행동은 언어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어성 분노행동의 개인차에 따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도 집단극화 유발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의사소통적인 분노표현은 상대나 타인에게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분노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는 표현방식이다. Davidson 등(1998)은 이를 언어성 분노행동(verbal anger behavior)이라 명명하였다(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를 타당화한 서수균의 연구(2007)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이 강하고 역기능적 분노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반면에,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비합리적 신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언어성 분노행동은 비합리적 신념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며, 따라서 익명성으로 인해 증폭되는 양극화 유발성은 언어성 분노행동으로 인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설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개인적 특성은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비합리적 신념은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2-2. 언어성 분노행동은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사회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Bond & Smith, 1996; 조궁호, 김은진, 2001). 특히 일본인들은 집단 구성원들이 낮은 사람들일 때는 동조율이 낮았고, 아는 사람들일 때는 동조율이 50%를 넘어 높았는데(Williams & Sogon, 1984),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우리’ 집단에 대한 과도한 동조와 낮은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Hofstede(1991)가 분류한 문화차원들 중에서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조직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양극화 유발성과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권력거리는 조직에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그 조직에서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직문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견 개진을 하기가 쉽지 않다. 권력거리는 윗사람과의 거리감을 뜻하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익숙치 않아, 이런 오프라인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탈억제된 극단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큰 문화에서는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 간의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이나 의견을 만나면 과도하게 집단극화 유발성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은영과 차유리(2010)가 30년 간의 변화를 조사한 대표적인 가치관 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자기주장성, 불확실성 회피, 미래지향성, 남녀평등의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특히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이 권력거리나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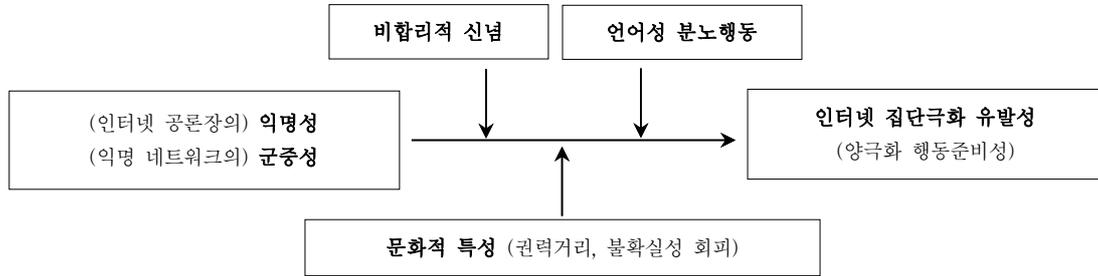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문제들의 요약 모델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한국의 문화적 특성은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을 어느 정도 강화하는가?

지금까지 도출한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모델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방법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시군부에서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할당표집으로 추출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의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6일부터 28

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훈련받은 면접자들이 표본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항 구성 및 측정 방법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

① 지각편파: 인터넷 의견들에 대한 지각적 편파

개인은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의견은 합리적이며 이성적, 논리적이라 여기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감정적이며 비이성적,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Gabarrot et al., 2009; Lefford, 1946; Gass, Seiter, 2007 재인용). 집단 간 행동에서 사람들은 외집단 보다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는 내집단 편애 또는 내집단 편파와 유사한 지각편파(perceptual bias)는 집단극화 유발성의 기반을 형성한다(김미희 등, 2005; Brown, 1988).

표 1. 2010년 조사 대상의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

지역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서울	37	38	38	37	150	400
	6대 광역시	38	37	37	38	150	
	경기도 (8개도 시/군부)	25	25	25	25	100	
여	서울	38	37	37	38	150	400
	6대 광역시	37	38	38	37	150	
	경기도 (8개도 시/군부)	25	25	25	25	100	
합계		200	200	200	200	8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루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읽게 되는 글 중, 자신의 생각과 같은 또는 유사한 의견은 대략 읽은 글 전체의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또는 반대되는 의견은 대략 읽은 글 전체의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안에 (감정적이지 않은) 이성적인 글들은 몇 %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여기는지, (이성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글들은 몇 %정도 있다고 여기는지를 응답자들로 하여금 기입하게 하였다. 본인의 의견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 글의 비율과 지각된 의견의 질 사이에 상관계수를 구하여 지각편과의 정도로 분석하였다.

②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태도와 행동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탈개인화, 집단정체감, 동조 등의 문헌들을 참조하여(Brown, 1988; Brown & Turner, 1981; Postmes & Spears, 1998), (a) '외집단 배척 태도' (예: 인터넷/온라인 상의 글이 내 의견과 다를 때 나는 대개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화가 난다", "한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b)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예: 의견 다를 때 "반박하는 댓글을 단다", 의견 같을 때 "동조하는 댓글을 단다", "다른 곳에 퍼나른다"), (c) '내집단 동조 태도' (예: 인터넷/온라인 상의 글이 내 의견과 같을

때 나는 대개 "그 사람과 동질감이 느껴진다",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항들에 대한 생각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633에서 .865까지 사이로 모두 무난하여, 이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의명성과 균중성을 증대시키는 인터넷 의사소통 특성

① 의명성 기반 공론장 중심 소통과 개인 중심 소통
 의명의 다수가 함께 하는 인터넷 공론장 중심 소통과 개별화된 개인들 간 소통을 구분하기 위해, 인터넷 의사소통 유형을 총 10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공론장 중심 소통'에 속하는 문항들은 "게시판에 글을 쓴다", "공론장에 참여한다", "공유할 자료를 올린다", "행동을 독려한다" 등이었고, '개인중심 소통'에 속하는 문항들은 "새로 올라온 정보를 확인한다", "개인블로그/미니홈피를 운영한다" 등이었다.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와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 스스로가 인식한 자신의 인터넷 의사소통 양식을 요인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공론장중심 소통' 요인과 '개인중심 소통' 2요인으로 구분되었고, 각 변인의 신뢰도가 .905와 .672로서 무난하여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다.

표 2.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요인부하	아이겐값	변량(%)	Cronbach's α
외집단 배척 태도	말도 안된다는 생각	.811	4.695	28.916	.760
	화가 남	.783			
	한심하다는 느낌	.725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반박댓글 달기	.830	1.528	17.943	.802
	동조댓글 달기	.835			
	동조댓글 나르기	.738			
내집단 동조 태도	동질감	.798	1.268	17.308	.865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	.802			
	기쁨	.796			
	안심	.787			
지각 편과	내 생각과 유사한 글이 많다고 생각	.848	1.106	12.481	.633
	이성적인 글이 많다고 생각	.850			

표 3. 인터넷 의사소통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변량(%)	Cronbach's α
공론장중심 소통	인터넷 기반 집회 참여	.832	5.451	41.723	.905
	인터넷 집단행동	.817			
	공론장 참여	.774			
	행동 독려	.768			
	읽고 댓글	.677			
	공유자료 업로드	.656			
	게시판에 글	.631			
개인중심 소통	업데이트 정보 확인	.853	1.110	23.886	.672
	개인블로그/미니홈피 운영	.663			
	중요 정보 퍼나르기	.591			

② 온라인의 일반적 타자 네트워크 규모의 균중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통 네트워크의 규모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하루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 수를 각각 응답하게 하였고, 이 가운데 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몇 명 정도인지를 각각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는 최종혁 등의 연구(2009)에서 제시된 대학생 연결망 측정을 위한 척도에 근거한 것이다. 오프라인 관계망의 크기는 의견 다양성과 정비례할 수 있지만, 익명

온라인 관계망의 크기는 개성이 부각되지 않는 균중성으로 인해 내집단 동조심리에 근거한 집단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cf. Latane, 1981).

개인적 특성요인

① 비합리적 신념

본 연구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한국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ABS-K)이다(서수균, 2009).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공정성

표 4. 비합리적 신념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Cronbach's α
공정성 욕구	부당한 대우 용납 못함	.822	2.323	17.871	.826
	내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816			
	나를 매우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쁘고 무가치한 인간.	.791			
인정욕구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랄 때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거절할 때 참을 수 없음.	.795	2.175	16.732	.800
	중요인물들에게 호감 얻기는 중요하며,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음.	.785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움.	.742			
편안함 욕구	긴장감, 불안감 견디기 어려움.	.822	1.763	13.560	.736
	일상에서의 사소하게 괴로운 일들을 참기 어려움.	.736			
	일상에서의 사소한 어려움들이 극도로 고통스러움.	.517			
성취욕구	중요한 과제에서 성공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음.	.781	1.651	12.701	.719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서 반드시 성공해야함.	.733			
자기비하	내게 중요한 일들을 잘 못해내면 나는 보잘것없는 나쁜 사람.	.779	1.613	12.410	.670
	직업, 학업, 기타 중요영역에서 내가 계속 실패했다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	.774			

표 5. 언어성 분노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Cronbach's α
파괴적	동정심을 얻기 위해	.772	2.700	24.548	.783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719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710			
	남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697			
	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	.695			
건설적	다음에는 그 상황에서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78	2.129	19.352	.684
	앞으로 닥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732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 모색가능성 파악위해	.661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역할들 잘 이해하기 위해	.633			
상대파악	분노를 느꼈던 사람 이해하기위해	.858	1.538	13.979	.697
	타인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기위해.	.845			

욕구, 인정욕구, 편안함 욕구, 성취욕구, 및 자기비하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내용과 변인의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670에서 .826 사이로서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언어성 분노행동

언어성 분노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서수균(2007)의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AB-VS)를 차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파괴적 정당화, 건설적 문제해결 및 상대파악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요인을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각 변인의 점수는 구성 요인에 포함된 문항 측정치의 합산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언어성 분노행동의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변인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 문화차원별 가치관 측정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성향과 관련된 문화차원별 가치관 측정을 위해 Hofstede(1991)의 문화차원 중에서 개인주의, 권력거리, 자기주장성, 불확실성 회피, 미래지향성, 남녀평등의식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3개씩 모두 18문항을 선정하였다(나은영, 차유리, 2010). 어떤 문화차원이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과 관련이 깊은지 알아보면서, 특히 낮은 것을 두려워하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윗사람에게 이견 제시를 어려워하는 권력거리 차원이 집단극화 유발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의견들에 대한 지각편파의 정도

인터넷 의견들에 대한 지각편파는 집단 양극화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

표 6. 인터넷 글 유사도와 이성적/감정적 글 판단 빈도 간 상관계수

	연령	나와 유사 글 %	나와 다른 글 %	이성적 글 %	감정적 글 %
연령	1				
나와 유사 글 %	-.057	1			
나와 다른 글 %	-.028	.262***	1		
이성적 글 %	.007	.477***	.267***	1	
감정적 글 %	-.191***	.160***	.420***	-.154***	1

*p<.05, **p<.01, ***p<.001.

표 7. 공론장 중심 vs. 개인 중심 인터넷 의사소통 특성이 양극화 유발성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의사소통 특성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 요인			지각 편과
	내집단 동조 태도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외집단 배척 태도	
공론장 중심 소통	.25***	.69***	.28***	n.s.
개인 중심 소통	.14**	-.07	.07	
Adjusted R^2	.13	.39	.10	
F	51.19***	225.43***	40.87***	
df	(2, 706)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각적 편과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 본인의 의견과 유사한 글이 더 많다고 생각할수록 이성적인 글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인터넷에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글이 더 많다고 생각할수록 감성적인 글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뚜렷한 지각편과가 관찰되었다.

익명성과 균중성이 증대된 의사소통 유형과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간 관계

익명의 공론장 중심 소통과 양극화 유발성

인터넷 사용 유형 중 특히 익명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론장 중심 의사소통이 개인 중심 의사소통에 비해 양극화 유발성에 어느정도 더 강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그

결과, 공론장 중심 인터넷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양극화 유발성이 높아, 가설1-1을 지지하였다. 특히 익명의 공론장 중심 소통은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을 크게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9$, $p < .001$). 익명의 공론장이 집단극화 관련 태도(내집단 동조 태도 $\beta = .25$, $p < .001$; 외집단 배척 태도 $\beta = .28$, $p < .001$)와 행동을 모두 증가시키며, 특히 행동유발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개인중심 소통은 내집단 동조 태도($\beta = .14$, $p < .001$)만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의 일반적 타자 네트워크 규모의 균중성과 양극화 유발성

소통 네트워크의 규모와 양극화 유발성 간의 관계를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의 일반적 익명 타자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양극화 유발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표 8. 소통 네트워크 규모가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일반적 vs. 깊이 있는 소통 네트워크의 규모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 요인			지각 편과
		내집단 동조 태도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외집단 배척 태도	
온라인	일반적 소통네트워크 규모	.22***	.03*	.12**	-.05
	깊이 있는 소통네트워크 규모	.02	.05*	.04	-.05
오프라인	일반적 소통네트워크 규모	-.10*	.03	-.04	-.14**
	깊이 있는 소통네트워크 규모	-.04	.03	-.12**	.07
Adjusted R^2		.05	.08	.02	.02
F		9.78***	15.46***	5.30***	4.88**
df		(4, 704)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비합리적 신념이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개인적 성향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요인			
		내집단 동조 태도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외집단 배척 태도	지각 편파
비합리적 신념	공정성 욕구	.18***	-.03	.07	0.05
	인정욕구	.10*	.13**	.16**	.11*
	편안함 욕구	.11*	.07	.03	.01
	성취욕구	.07	.05	.05	.02
	자기비하	.07	.17***	.13**	-.00
Adjusted R^2		.17	.10	.12	.01
F		29.57***	16.58***	29.17***	1.61
df		(5, 703)			

* $p < .05$, ** $p < .01$, *** $p < .001$

발견되어, 가설1-2가 지지되었다(표 8 참조). 특히 온라인의 일반적 타자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내집단 동조 태도($\beta = .22$, $p < .001$)와 외집단 배척 태도($\beta = .12$, $p < .01$)가 강해져, 익명 타자 네트워크의 규모는 행동보다 '태도' 측면의 집단극화 유발성을 더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소통네트워크의 규모와 반대로, 오프라인 소통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프라인의 일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지각 편파도 적었고($\beta = -.14$, $p < .01$), 내집단 동조 태도도 적었다($\beta = -.10$, $p < .05$). 또한 오프라인의 깊이 있는 소통대상 규모가 클수록 외집단 배척 태도도 줄어들었다($\beta = -.12$, $p < .01$).

오프라인 소통은 대개 실명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 소통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집단극화 유발성 요인들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실명의 오프라인 소통규모는 '실명의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만, 익명의 온라인 소통 규모는 클수록 맹목적인 내집단 동조 태도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간 관계

비합리적 신념과 양극화 유발성

회귀분석 결과, 비합리적 신념의 구성요인들은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1이 지지되었다(표 9 참조). 구체적으로, 공정성 욕구($\beta = .18$, $p < .001$)와 편안함 욕구(β

표 10. 언어성 분노행동이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개인적 성향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요인			
		내집단 동조 태도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외집단 배척 태도	지각편파
언어성 분노행동	과격적 정당화	.22***	.19***	.22***	.22***
	건설적 문제해결	.06	-.05	-.08*	-.05
	상대과약	.17***	.10*	.17***	.01
Adjusted R^2		.11	.05	.08	.04
F		30.85***	13.15***	22.67***	10.88***
df		(3, 705)			

* $p < .05$, ** $p < .01$, *** $p < .001$

=.11, $p<.05$)가 강할수록 내집단 동조 태도가 강했고,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집단극화 유발성 네 요인이 모두 증가했으며(내집단 동조태도 $\beta=.10$, $p<.05$;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beta=.13$, $p<.01$; 외집단 배척 태도 $\beta=.16$, $p<.01$; 지각편파 $\beta=.11$, $p<.05$), 자기비하 성향이 클수록 외집단 배척 태도($\beta=.13$, $p<.01$)와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beta=.17$, $p<.001$)이 증가하였다. 성취욕구는 양극화 유발성과 무관하였다.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인터넷에 자기 의견과 유사한 의견이 많고 이성적 글이 많다고 생각하는 지각편파가 크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한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 신념이 ‘인정욕구’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성 분노행동과 양극화 유발성

언어성 분노행동이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2-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표 10 참조). 파괴적 정당화가 강할수록 내집단 동조 태도($\beta=.22$, $p<.001$),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beta=.19$, $p<.001$), 외집단 배척 태도($\beta=.22$, $p<.001$), 및 지각편파($\beta=.22$, $p<.001$)가 모두 증가하였다. 상대편파 요인도 파괴적 정당화보다는 효과 크기가 작았지만 지각편파를 제외한 양극화 유발성 3요인 모두를 증가시켰다(내집단 동조 태도와 외집단 배척 태도 모두 $\beta_s=.17$, $p_s<.001$;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beta=.13$, $p<.05$). 건설적 문제해결 요인은 외집단 배척 태도를 약간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beta=-.08$, $p<.05$).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간 관계

연구문제3의 해답을 얻기 위해 문화적 가치관 차원에 따라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예상했던 대로, 권력거리가 클수록, 즉 고용시 책임감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 즉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태도와 행

동이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수록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태도와 지각편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와는 조금 다르게, 상하구별보다 직능 구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 측면의 집단극화 유발성이 조금 더 높았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 차원에서는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을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외집단 배척 태도가 높았고, 외국인을 우대할 필요가 없으며 여유 있기보다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집단극화와 관련된 행동 유발성이 더 높았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낯선 것을 비호의적으로 생각할수록 집단극화 유발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란 문화적 특성이 집단극화 유발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녀평등의식이 더 높을수록, 즉 결혼한 여자도 활동을 해야 하며 시택(본가)과 친정(처가)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이나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내외집단 차별이나 편파 지각에 기인한 집단극화 유발성이 낮다는 점이다. 결국 외집단을 배척하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소수집단이나 ‘나와 다른’ 집단을 ‘나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못함으로써 집단극화 유발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남녀평등의식 차원만큼 강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가치관 차원들도 인터넷 극화 유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개인주의 차원에서는 충효사상을 경시할수록 외집단 배척 태도와 집단극화 유발 행동이 더 강한 경향이 있었고, 불만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편파를 제외한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3요인이 모두 높았다. 오프라인에서 의견 개진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양극화 유발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력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편파는 심했지만 인터넷 극화 관련 행동지향성은 더 낮았다. 행동과 관련된 요인은 전반적으로 ‘표현성’과 큰 관련성을 보였다.

표 11. 가치관 차원별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의 차이

문화적 가치관		N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							
			내집단 동조 태도		외집단 배척 태도		내집단 동조 및 외집단 배척 행동		지각 편파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개인주의	충효 중시	435	2.57	-.77	2.38	-2.56*	1.61	-2.36*	2.31	.53
	충효 경시	274	2.62		2.54		1.76		2.27	
권력거리	고용시 순종 중시	245	2.75	3.59***	2.55	2.45*	1.77	2.28*	2.37	1.56
	고용시 책임감중시	464	2.51		2.39		1.62		2.25	
	상하구별 중요	408	2.56	-1.27	2.42	-.89	1.61	-2.27*	2.29	-.18
	직능구분 중요	301	2.64		2.48		1.75		2.30	
	상사잘못 지적X	165	2.78	3.31**	2.62	3.21**	1.79	1.96	2.41	2.02*
	상사잘못 지적0	544	2.53		2.39		1.64		2.25	
자기주장성	불만 인내	170	2.80	3.70***	2.61	3.01**	1.80	2.36*	2.39	1.76
	불만 시정요구	539	2.52		2.39		1.63		2.26	
	실력 겸손	551	2.58	-.66	2.42	-1.26	1.63	-2.69**	2.35	3.28**
	실력 표출	158	2.63		2.52		1.83		2.09	
불확실성회피	여유로운 마음	525	2.59	.18	2.42	-1.52	1.63	-2.08*	2.27	-1.02
	서두르는 마음	184	2.58		2.52		1.78		2.35	
	외국인 우대	442	2.58	-.52	2.38	-2.52*	1.61	-2.68**	2.27	-.87
	외국인 비우대	267	2.61		2.54		1.78		2.33	
	낮선이 우대	566	2.57	-1.26	2.39	-3.32**	1.64	-1.95	2.28	-.79
낮선이 비우대	143	2.67	2.65		1.80		2.34			
미래지향성	과거중시	89	2.71	1.38	2.71	3.28**	1.85	2.21*	2.54	2.86**
	미래중시	620	2.57		2.41		1.64		2.26	
	풍습 유용성 O	424	2.54	-1.72	2.35	-3.75***	1.58	-3.52***	2.18	-3.96***
	풍습 유용성 X	285	2.66		2.59		1.81		2.45	
남녀평등의식	결혼한 여자 활동	464	2.53	-2.41*	2.37	-3.42**	1.59	-3.54***	2.18	-4.80***
	여성 자리=가정 안	245	2.70		2.59		1.83		2.51	
	시집에 충성	72	2.96	3.90***	2.65	2.21*	1.92	2.34*	2.32	.27
	시집친정 동등대우	637	2.55		2.42		1.64		2.29	

주.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4요인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문항은 제시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끝으로,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할수록, 그러면서도 풍습이 유용하다고 믿을수록 외집단 배척 태도와 관련 행동, 지각편파가 모두 낮아, 집단극화 유발성이 낮았다. 결국 풍습의 유용함도 인정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결론 및 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집단극화의 부작용도 눈에 띄게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우려만 증폭되어 왔을 뿐 정작 한국 상황에서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성찰은 학술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오늘날은 제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논의가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이은주, 2008). 날이 갈수록 오히려 가중화되는 집단극화의 포섭 범위를 고려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간 갈등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개인 중심 인터넷 이용에 비해 익명성이 확대된 공론장 중심 이용이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했다. 둘째, 깊이 없는 온라인 타자 네트워크 규모의 균중성은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요인 중 지각편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요인(외집단 배척 및 내집단 동조 태도와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 중 인정욕구, 그리고 언어적 분노행동 중 파괴적 정당화가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 구성요인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넷째, 외국인을 비롯한 낯선 대상과 이견(異見)을 수용하기 꺼려하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거나, 뒷사람에게 이견 개진을 어려워하는 권력거리가 클수록,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 양극화 유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인터넷 공론장의 익명성 증대 상황과 온라인 일반 타자 네트워크의 균중성, 그리고 개인성향 및 문화적 특성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소통 행위를 위해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개인 특성이 최소화되는 익명 공론장의 소통 특성과 일반적 온라인 타자 네트워크의 균중성이 인터넷으로 인한 집단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흥미로우면서도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공론장의 익명성과 익명

의 타자 네트워크가 지니는 균중성이 합쳐진 공간으로서, 자칫 비이성적인 균중심리와 집단극화가 함께 일어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공론장은 무선화된 익명 토론장과 일반 타자 네트워크 균중성의 특성이 합쳐져 있어,¹⁾ 개인 특성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의견의 유사성만으로 집단이 나뉘어 의견 극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익명성과 균중성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특성이 살아 있는 개인화, 인간화된 소통 공간이 절실히 보인다.

인터넷 공론장의 익명성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균중성이 집단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이 비합리적 신념을 지니고 있거나 특히 파괴적인 언어성 분노행동을 보일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뒷사람을 거스르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자유롭지 않은 권력거리 큰 문화, 그리고 낯선 사람과 낯선 의견을 두려워하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으로 인해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집단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이 낮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미풍양속을 경시하지 않고, 여성이나 외국인과 같은 다양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수록 외집단 배척이나 내집단 동조로 인한 양극화 유발성은 약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 어느 방향인지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와 다른’ 존재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을 지닐 때, 익명성과 균중성에서 자유롭기 힘든 인터넷 공론장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적절한 문항들이 발견되지 않는 측정변인의 경우, 이론적 문헌 개관을 통해 파악된 개념들을 중심으

1) 트위터에서 몇몇 파워 트위터의 설명은 잘 알려져 있고 실명으로 활동하는 트위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익명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잘못 지각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들을 구상하여 요인분석한 변인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비록 신뢰도가 확보된 변인들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둘째, 이 연구는 성인 800명 표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연령대로까지 표본을 확장해 인터넷 집단극화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 또한 인터넷 활동도가 높고 연령적 특성상 집단행동에 대한 동기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 차원에서의 시민행동은 물론 부정적 차원에서의 플레이밍 행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인터넷 집단극화를 측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집단극화 유발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이슈에 적용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응답자가 온라인에서 접하게 된 이견이 그 공론장에서 대세였는지 혹은 비주류였는지, 내집단의 메시지였는지 외집단의 메시지였는지 등과 같은 상황 설정 속에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터넷 집단극화 유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익명성 확대 공론장 소통 특성과 온라인 익명 네트워크 규모의 균중성, 그리고 개인적 및 문화적 속성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 연구는 집단극화의 심리적, 문화적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익명화된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자기지각과 타인지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본인은 어떤 활동을 해도 자기 정체성을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투명인간으로 지내며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타인들은 개성이 상실된 채 ‘미디어를 사이에 둔 타자들의 무리’로서 균중성을 지닌 한 덩어리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두 조건이 모두 양극화 유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소통의 도구를 활용할 때, 개개인의 특성을 희생하지 않는 다양성의 확보가 익명성과 균중성에 의한 비이성적 집단극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파괴적 정당화와 같은 언어성 분노행동을 감소시키고, 문화적으로는 낯선 대상이나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익명의 군중 속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때 소통을 통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희, 김기범, 차영란 (2005). 현실 및 가상공간에서의 집단범주화 방식과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집단성 지각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37-54.
- 김성애, 이종혁 (2011). 뉴스 프레임과 수용자 스키마 일치가 프레임 효과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대학생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55(2), 103-127.
-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2(1), 93-127.
- 나은영, 차유리 (2011).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박성희, 박은미 (2007).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9, 284-323.
- 박현구 (2008). 플레이밍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유사언어: 유사언어 유형과 언어의 공공성의 관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0, 7-37.
- 배영 (2005). 네트워크 사회의 인간관계와 사회심리,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 서길수, 임건신, 심상민, 서응교, (2009). 집단극화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재고: 익명성 효과. *연세경영연구*, 46(2), 가을호, 195-215.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극화. *현상과 인식*, 35(3), 39-58.
- 이동훈 (2009).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4), 27-49.
- 이은주 (2008). 탈개인화 효과에 관한 사회적 자아정체성 모델. *커뮤니케이션이론*, 4(1), 7-31.
- 이은주 (2011).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몇

- 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 지각. *한국언론학보*, 55(3), 179-198.
- 서수균 (2007)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39-250.
- 서수균 (2009). 한국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21(1), 113-130.
- 조증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최종혁, 김형준, 안태숙, 허정은, 권혁수, 김효정 (2009). 대학생 연줄망 축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61(3), 5-342.
- Baum, M. A., & Groeling, T. (2008). New media and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25(4), 345-365.
- Bond, R., & Smith, P.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7.
- Brown, R. J. (1988). *Group process: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NY: Basil Blackwell.
- Brown, R. J., & Turner, J. C. (1981).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behavior. In J. C. Turner & H. Giles (Eds.), *Intergroup behavior*. Oxford: Basil Blackwell.
- Burnstein, E., & Vinokur, A. (1977). Persuasive argum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as determinants of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15-332.
- Davison, K., Stuhr, J., & Chambers, L. (1998). Constructive anger behavior as a stress buffer. In K. D. Craig & K. S. Dodson(Eds.), *Stres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Thousand Oaks: Sage Press.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ger and general anger: Client manual*.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Diener, E. (1980). Deindividuation: The absence of self-awareness and self-regulation in group members. In P. B. Paulus (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pp. 209-24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 Hill.
- Fromm, E. (1941).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Farrar & Rinehart.
- Gabarrot, F., Falomir-Pichastor, J. & Mugny, G.(2009). Being similar versus being equal: Intergroup similarity moderates the influence of ingroup norms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2), 253-273.
- Gass, R.H., Seiter, J.S.(2007). *Persuasion, social influence, and compliance gaining*, 3rd ed. Boston, MA: Allyn & Bacon/Pearson.
- Harkins, S., & Petty, R. E. (1981). The multiple source effect in persuasion: The effects of dist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627-635.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New York: Routledge.
- Hogg, M. A., Turner, J. C., Davidson, B. (1990). Polarized norms and social frames of reference: A test of the self-categorization theory of group polariz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77-100.
- Latane, B. (1981). The psychology of social impact. *American Psychologist*, 36, 343-356.
- LeBon, G. (1908). *The crowd: A study of the*

- popular mind*. London: Unwin. (초판은 프랑스어로 1896년에 발간됨).
- Lee, E. -J. (2006). When and how does depersonalization increase conformity to group norm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3, 423-447.
- Lefford, A. (1946). The influence of emotional subject matter on logical reading,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34, 127-151.
- Milgram, S., Bickman, L., & Berkowitz, L. (1969). Note on the drawing power of crowds of different siz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79-82.
- Myers, D. G., & Lamm, H. (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602-627.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 Postmes, T., & Spears, R. (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3), 238-259.
- Postmes, T., Spears, R., Lee, A. T., & Novak, R. J. (2005). Individuality and social influence in groups: inductive and deductive routes to group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747-763.
- Price, V. (1989). Social identification and public opinion: Effects of communicating group confli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 197-224.
- Reicher, S. (1987). Crowd behavior as social action.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pp. 171-202).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Reicher, S., Spears, R., & Postmes, T. (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6, 161-19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pp. 7-24). Chicago: Nelson-Ha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Yun, G. W. Park, S. Y. (2011). Selective Posting: Willingness to post a message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2), 201-227.
- Wallace, P. M. (1999).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son, P. J., Culhane, S. E. (2005). Irrational beliefs and social constructionism: Correlations with attitudes about reality, beliefs about people, and collective self-esteem.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3(1), 57-70.
- Wicklund, R. A. (1982). How society uses self-awareness.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1). Hillsdale, NJ: Erlbaum.
- Williams, T. P., & Sogon, S. (1984). Group composition and conforming behavior in Japanese studen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6, 231-234.
- Zimbardo, P. 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 J. Arnold & D. Levine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17, pp. 237-307).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Determinants of Internet Group Polarization: Effects of Anonymity and Network Crowdedness of Internet Public Sphere, and Individual & Cultural Factors

Na, Eun-Yeong Cha, Yuri
So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show that the anonymity and network crowdedness of internet public sphere might increase the readiness for internet group polarization, which was composed of ingroup conformity and outgroup exclusiveness. In addition, irrational beliefs and verbal anger behavior as well as cultural factors such as power distance and uncertainty avoidance may exacerbate the tendency of internet group polarization. The survey results of 800 Korean samples proved that internet public sphere communication, network size, desire for approval, destructive justification, power distance, and uncertainty avoid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eadiness for internet group polarization,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general internet group polarization readiness rather than on issue-centered group polarization. Internet communication tends to intensify the effects of anonymity, which may in turn increase the readiness for group polarization. Those spheres that accept various individualities and those internet cultures that are open to different opinions and strangers will be desirable to decrease the arousal of internet group polarization.

Key words: group polarization, public sphere, anonymity, network crowdedness, irrational beliefs, verbal anger behavior, culture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12월 2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2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2월 25일